Ciba, Raisio 제지약품 사업 인수

광범위한 영업망으로 일괄구매 제공 … 4억2200만유로 매출증대 기대

Ciba Specialty Chemicals이 글로벌 제지산업의 중심인 스칸디나비안 시장에서 Raisio Chemicals을 인수하며 전략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굳히고 있다.

Ciba는 3월23일 제지산업에서 최상위급의 화학제품 공급기업인 핀란드 Raisio Group의 Raisio Chemicals을 4억7500만유로(7억3600만SF)에 인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2003년 매출액 4억2200만유로(약 6억5000만SF)을 기록한 Raisio Chemicals을 인수함으로서 양사는 상호 보완적인 제지화학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Ciba Specialty Chemicals의 회장 겸 CEO인 아민 마이어 회장은 “Raisio Chemicals 인수를 통해 Ciba는 광범위한 제품군과 상당히 넓은 지역학적 접근을 가지고 제지약품 공급에서 최상의 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할 거이며, R&D 운영에서 협력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aisio Group의 CEO인 Rabbe Klemets도 “Raisio Chemicals 매각은 Raisio Group과 주주들을 위한 것으로 Ciab의 적극적인 참여로 합병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Ciba Specialty Chemicals은 현재 보류 및 탈수제, 정착제, 종이 형광증백제, 염료, 코팅첨가제, 표면 향상제, 내유제, 사이즈제, 그리고 감압·감열지를 위한 제품을 포함한 공정, 기능성 제지에 적용하기 위한 제지약품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Raisio Chemicals은 2003년 기준 4억2200만유로의 매출을 올린 제지 및 보드 제조용 기능성 제지약품 생산·공급기업으로 세계 41개 생산거점에 1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3/24>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